

등급정보 (돼지)



■ 등급별 출현율(전국)

▷ 11월 돼지도체 등급판정두수 : 1,180,688두로 전월대비 133,589두(10.2%) 감소, 전월동기 대비 98,840두(7.7%) 감소

▷ 육질등급별 출현비율 : 1등급 1.9%, 1등급 69.4%, 2등급 23.4%, 3등급 1.6%
1·1등급 출현율 : 71.3%로 전월대비 0.7%p 증가

▷ 규격등급별 출현비율 : A등급 37.9%, B등급 30.3%, C등급 15.6%, D등급 12.4%, E등급 3.7%

- A·B등급 출현율 : 68.2%로 전월대비 0.4%p 감소, 전년동기 대비 2.0%p 증가

■ 돼지 등급별 경락가격(농협서울공판장)

▷ 돼지도체(암돼지) kg당 평균경락가격(Ⓜ등급 제외) : 4,558원으로 전월 대비 781원 상승, 전년 동기 1,755원 상승

▷ 육질 등급별 : 1등급은 5,111원으로 전월대비 781원 상승, 1등급은 4,702원으로 전월대비 944원 상승, 2등급은 4,053원으로 전월대비 877원 상승, 3등급은 3,430원으로 전월대비 525원 상승, 1등급과 2등급간 가격차이는 1,058원

▷ 규격 등급별 : A등급은 4,825원으로 전월대비 967원 상승, B등급은 4,623원으로 전월대비 978원 상승, C등급은 4,409원으로 전월대비 945원 상승, D등급은 4,075원으로 전월대비 763원 상승

돼지등급별 출현두수 및 출현율

(단위 : 두, %)

구분	등급	'08년 1~11월	'08년 11월	14개도매시장 (공판장)상장	지방작업장 이 용
육 질	계	12,490,689	1,180,688	154,581	1,026,107
	1등급	167,088	22,447	1,774	20,673
		1.3	1.9	1.1	2.0
	1등급	8,126,432	819,847	92,375	727,472
		65.1	69.4	59.8	70.9
규 격	2등급	3,458,192	276,110	37,861	238,249
		27.7	23.4	24.5	23.2
	3등급	229,378	18,927	5,884	13,043
		1.8	1.6	3.8	1.3
	A등급	4,606,811	447,842	43,184	404,658
규 격		36.9	37.9	27.9	39.4
	B등급	3,757,202	358,052	41,739	316,313
		30.1	30.3	27.0	30.8
	C등급	2,065,158	184,478	25,789	158,689
		16.5	15.6	16.7	15.5
규 격	D등급	1,551,919	146,959	27,182	119,777
		12.4	12.4	17.6	11.7
	E등급	509,599	43,357	16,687	26,670
	4.1	3.7	10.8	2.6	

* 주) 1. 2007년 7월 1일부터 돼지등급판정기준개정에 따라 육질등급판정 시행 2. 육질등급자료는 E등급 제외하고 집계

등급별 출현을 추이

(단위 : 년, 두, %)

구분	2006	2007	2007		2008			D-C	D-A	E-B	
			11월(A)	1~11월(B)	10월(C)	11월(D)	1~11월(E)				
판정두수	13,072,746	13,611,855	1,279,528	12,437,184	1,314,277	1,180,688	12,490,689	Δ133,589	Δ98,840	53,505	
육질	1	-	-	12	1.0	1.6	1.9	1.3	0.3	0.7	0.3
	1	-	-	64.6	62.7	69.1	69.4	65.1	0.3	4.8	2.4
	2	-	-	28.3	29.9	23.9	23.4	27.7	Δ0.5	Δ4.9	Δ2.2
	3	-	-	2.0	2.4	1.6	1.6	1.8	0.0	Δ0.4	Δ0.6
규격	A	36.3	36.3	36.5	36.3	38.3	37.9	36.9	Δ0.4	1.4	0.6
	B	30.2	29.7	29.7	29.7	30.3	30.3	30.1	0.0	0.6	0.4
	C	16.3	16.7	16.4	16.7	15.7	15.6	16.5	Δ0.1	Δ0.8	Δ0.2
	D	13.6	13.5	13.4	13.4	11.8	12.4	12.4	0.6	Δ1.0	Δ1.0
	E	3.6	3.8	4.0	3.8	3.8	3.7	4.1	Δ0.1	Δ0.3	0.3

가격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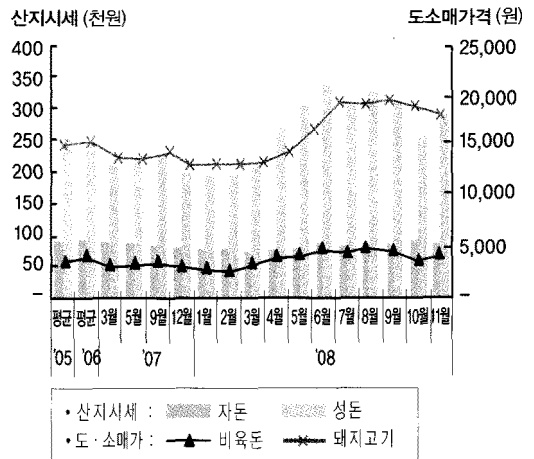
- 소비물량 감소로 돈가 약보합세 전망

12월초부터 중순까지 지육 kg당 4400원~4600원대를 형성했던 돈가는 원산지 표시제 실시로 인해 유통업체의 국산돈육 구매량이 증가하고 음식점에서는 기존 판매하던 수입육을 국산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호재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송년행사 및 대형마트 연말 할인 행사도 한몫했다. 하지만 학교방학으로 인한 소비물량 감소와 전통적으로 지육가격은 연말 강보합세 이후 1~2월 내리막길을 보이거나 3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던 점을 감안하면 향후 돈가는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동향

- 돼지 흐름별 시세변동 추이

년	구분	산지시세		도매가	소매가
		돼지		전국	전국
		자돈	성돈	비육돈	돼지고기
'05	연평균	92	253	3,730	14,888
	3월	90	213	3,118	13,784
'07	5월	89	226	3,445	13,632
	9월	83	229	3,398	14,666
	12월	77	197	2,905	13,296
	1월	77	195	2,859	13,736
'08	2월	76	194	2,832	13,626
	3월	75	210	3,245	13,282
	4월	75	273	4,116	14,736
	5월	82	303	4,591	16,916
	6월	89	341	5,000	19,494
	7월	89	307	4,552	18,966
	8월	90	328	4,925	19,398
	9월	90	308	4,447	19,028
	10월	88	259	3,633	17,792
	11월	89	293	4,536	17,568



주) 1. 산지시세 단위 : 천원 2. 도·소매가 단위 : 원/kg

* 축산뉴스 (돼지) *

‡ 제주도, '흑돼지 명품만들기' 50억 투자

최근 소비자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제주산 흑돼지가 농림수산식품부의 '향토산업 육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집중육성 된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산 흑돼지가 농식품부의 '향토산업 육성사업' 대상으로 뽑혀 내년부터 2011년까지 50억원이 집중투자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내년부터 3년동안 흑돼지 가공·유통 및 연구분야에 30억원을 투자해 △제주산 흑돼지의 특이성 발굴 △신상품 개발 △발전방안 워크숍 △통합브랜드 및 인증프로그램 개발 △전문 판매장 개설 △제품생산 기반시설 및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12월 안으로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제주 흑돼지고기 명품화 사업단'을 구성해 홍보 마케팅 전략 등을 세울 예정이다.

‡ 소·돼지고기 2010년부터 포장유통 의무화 될듯

닭·오리에서 시행되고 있는 포장유통 의무화 사업이 소·돼지고기에서도 시행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석희진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팀장은 최근 대전 유성 흥인호텔에서 열린 '위기의 종돈산업 어디로 가야하나' 정책토론회에서 2010년부터 3년간 소·돼지고기 포장유통 의무화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 팀장은 "포장유통 의무화는 품질과 원산지를 속여 파는 식육 둔갑판매와 식육 유통과정에서의 2차 오염을 막을 수 있다"며 "원산지표시제와 더불어 시행할 경우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더욱 쉽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장 유통에 따른 비용증가와 도축장·2차 가공업체의 시설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축장 폐업 보상금 지원 등을 통해 도축장 통폐합 및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도축장 부지 용도변경 과정을 거쳐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항생제 대신 김 이용해 돼지·닭 사육 성공

국립수산과학원 군산수산사무소는 국내 최초로 항생제 대신 김을 돼지와 닭의 사료에 혼합하여 사육하는

데 성공했다. 홍종민 소장은 지난 11월 12일 "항생제의 과다 사용으로 먹거리에 대한 불신감이 증가됨에 따라 김에 포함된 porphyrin(특수다당성분)의 면역력 증강효과에 대해 지난 한해동안 예비시험을 거친 뒤 김을 가축사료에 혼합해 돼지는 5개월여, 닭은 30일~40일 사육했다"고 밝혔다. 또 "항생제를 전혀 첨가하지 않고 김을 먹인 돼지에서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30% 낮게 나타났다"면서 "사육결과에 대해서는 전북 축산위생연구소와 전북생물산업진흥원에 4회에 걸쳐 시료를 의뢰해 이같이 검증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양식을 할 때 처음 채취하는 김과 마지막 채취하는 김을 버리거나 아주 싼값에 판매하는데 따른 자원 활용을 목적으로 추진돼 김 양식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도축장에 거출금 강제징수 '위헌'

헌법재판소가 도축업자에게 거출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와 축산자조금을 원할한 징수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제2차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양돈자조금대위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진각 양돈자조금 사무국장은 '과태료부과처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관련한 11월 30일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제도개선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경기도청은 지난 2004년에 양돈자조금 징수위탁을 거부한 도축장인 포천농축산(주)와 (주)북서울에 과태료부과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포천농축산과 북서울을 2005년 1월 25일 과태료부과처분 이의신청 및 위헌제청을 했고, 그해 12월 의정부지방법원이 이유가 없다며 기각을 했다는 것. 그러나 포천농축산과 북서울은 이에 굴복해 2006년 1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했다. 그리고 지난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축산물소비촉진법의 규정들이 도축업자에게 거출금징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지와 관련, '도축업자에게 거출금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렸다.